

증례 V - 1

**마모로 인해 수직 고경이 감소된 환자에서
수직고경 증가를 동반한 완전구강 회복 증례**

이승헌, 류재준, 신상완, 서규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구치부가 상실되어 대합되지 않게 되면 환자들은 전치부로 저작을 하게 된다. 구치부를 수복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전치부는 환자의 치주 상태에 따라 두 가지 다른 과정을 겪게 된다.

치주 상태가 나쁜 경우는 전방 돌출 및 지속적인 동요도를 보이고 점차 수직 고경의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치주 상태가 좋은 경우는 전치부의 지속적인 마모로 역시 수직 고경의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교합 평면의 조화가 무너지고 저작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수직 고경의 회복과 저작계의 모든 요소들과 조화되게 교합 평면을 설정하고 교합 관계를 개선하여 심미적,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수직 고경이 감소된 환자는 고정성 및 가철성 보철물을 이용하여 완전 구강 회복을 시행하게 된다. 고정성 보철물을 이용할 경우 무치악 부분은 bridge 의 pontic 으로 수복하거나 임플란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접한 자연치와 골유착성 임플란트를 연결하여 보철 수복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본 증례의 환자는 67세 남자 환자로 상악의 좌, 우측 소구치 및 대구치의 결손과 함께 잔존치 교합면의 심한 교모로 인한 저작 기능의 손상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결손된 구치부의 공간은 거의 폐쇄되어 있었고 잔존치 사이에는 약간의 공간이 남아있었다. 수직 악간 관계에 대한 검사후 교합기 상에서 incisal guide pin을 4mm 높여 진단 wax up을 시행하였고 provisional restoration을 6개월 동안 장착후 환자가 심미적으로 만족하고 기능적으로 적응함을 관찰하였다. 이에 전방 유도는 provisional restoration 장착후 얻어진 안정화된 상태에서 customized anterior jig를 이용하여 최종 보철물에 재현하였다. 상악 좌측 무치악 부위에는 ITI implant를 두 개 식립하였고 attachment를 이용하여 인접치아와 rigid connection 하였다. 이러한 치료 과정을 통하여 심미적이며 기능적인 수복이 가능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